

인터넷전문 K뱅크 영업 금융권 긴장

원 앱·원 계좌 서비스 등 차별화된 편리성 내세워

첨단 정보통신(IT) 기술로 무장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이달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국내 금융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 전망되는 전방 속에 출범을 앞둔 K뱅크가 업계의 기대만큼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는 이달 중순부터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공개하고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K뱅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분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임직원과 주주, 협력사 임직원 등을 상대

로 실거래 운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K뱅크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은 원 앱과 함께 원 계좌 서비스 등 차별화된 편리성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은 서비스별로 여러 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앱 안에 모든 서비스를 넣으면, 앱이 너무 무거워져서 앱을 켜 놓는다.

하지만 K뱅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앱에서 계좌 신규부터 대출이나 상품 가입은 물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IP)까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 24시간 365일 은행

업무를 무리없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K뱅크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 앱과 비교해 훨씬 단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IT 업체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뭐가 다른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K뱅크는 수시입출금 통장에 잔액이 300만원 있다면 이중 여유자금 100만원에 대해 한 달짜리 단기 예금으로 설정해 놓으면 수시입출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예금 이자와 최저 수준의 대출 금리를 목표로 하는 가격 경쟁력도 K뱅크의 강점이다.

금융권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태풍의 핵'으로 부상한 인

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실제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365일 24시간 은행업무가 가능한 데다 오프라인 유지비용 부담이 없어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고객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예금 및 대출상품의 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반짝 성공에 그치지 않으려면 혁신성이나 편의성, 금리 면에서 기존 은행 고객을 유인할 만한 매력적인 금융서비스로 차별화에 성공해야 한다"며 "영업 초기에 금융사고, 전산오류 등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축산경제 부문 '대상'

100만원 시상금·5억원 무이자 자금 지원 받아

전북농협은 2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거행된 2016년 축산경제 부문별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의 3개 축협이 대상을 차지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에서는 매년 7개 사업부문을 전국 최우수 실적 중 전북이 3개를 석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에서는 축산물 판매와 축산컨설팅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을 받은 조합은 부상으로 100만원 시상금과 5억원 무이자 자금 지원도 받게 된다.

강태호 본부장은 "전국 139개 축협에서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조합에 대상을 시상하는데, 7개 부문 중 전북이 3개를 석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에서는 축산물 판매와 축산컨설팅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재용 기자

전문건설업체 현장관리자 "우리가 무료봉사하러 왔나?"

인건비는 하도급 내역 반영할 항목없어 사실상 '무급'

전문건설업체 현장관리자는 하도급 공사 내역 상에서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없어 사실상 무료봉사자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 배치가 최소한에 그쳐 공사품질, 안전관리 등 문제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원하도급간의 간접비 분쟁에서도 하도급업체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등에 따르면 법적으로 의무배치 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명을 제외하고도 보험 등 각종 제도

도입이 있따르면서 하도급업체가 챙겨야 하는 현장 관리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현장관리 인력을 늘려야 한다.

원도급사들도 관리인력 수를 하도급 계약서 등에 특정하고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하도급 내역에 마땅히 반영할 항목이 없어 직접노무비나 공과금, 이윤 등 항목에서 실시할만 해야 하는 실정이고, 원도급사들도 알아서 챙기라는 입장이다. 결국 무급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현장관리 인력을 늘릴수록 현장비용이 늘고, 그렇다고 필요한 인건비를 입찰가에 반영하면 최저가로 낙찰받기가 어려워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현장 관리인력이 무급화 되면서 하도급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한명이라도 줄이려 노력하고, 덩달아 공사진행이나 품질, 안전 등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공가지연에 따른 원하도급간 간접비 분쟁에서 하도급사가 현장운영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원도급사는 공사비 항목을 세분해 반영받으면서 하도급업체에게는 직접노무비 외에는 인건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관리인력 축소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의 관계자도 "하도급사의 현장관리인력 감소로 발생하는 피해 관리는 결국 원도급사가 져야 한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현장인력 인건비를 인정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대고객 감사 정기예금 특판 실시

전북은행은 2일부터 31일까지 개인 및 일반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대고객 감사 정기예금 특판'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예금 특판은 주거래 고객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기획했으며, 특판한도는 총3,000억원으로 한도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특판예금의 가입금액은 개인은 300만원이상 3억원이내, 일반법인은 300만원이상 5억원이내로 가입가능하며, 기간은 12개월로 가입할 수 있다.

특판금리는 시장금리부정기예금 고시금리에 특판금리 연0.50% 뿐만 아니라 일정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 0.01%~0.05%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없어준다.

우대조건으로는 가입시점에 스마트뱅킹 정상 개인고객 또는 기업인터넷뱅킹 정상 기업고객, 최근 1개월 이내 신용카드 사용고객, CIF기준 당행 최초 신규고객, 가입시점에 정기적립식 가입고객, 타행에서 전북은행으로 계좌이동 등록고객에 대해서는 각 우대항목별 연0.01%를 가산해 지급하며 전북은행 전 영업점에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b bank.c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농어촌공 전북, 농지매입비축사업비 160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2017년도에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비 16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20%에 해당하는 2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상반기 중에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비축사업의 목적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는 장기임대 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경진원,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과정 진행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설립 전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총 30개 팀 154명의 신청자로 시작된 입문과정에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와 마을기업 설립 기준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각 공동체의 사업진입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어진 기본과정은 선배 마을기업 대표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사업별 전문기술을 비롯한 사업 전 준비사항, 마을기업만의 유통전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았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심화과정에서는 마을기업 신청과 심사방법에 대한 안

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실습 및 멘토링으로 구성됐으며, 이 과정을 통해 사업의 구체화, 공동체의 역할 분담 등 실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3단계의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이수한 팀은 18개 팀으로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올해는 도 시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마을기업 사업 모델들이 발굴됐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팀은 행자부 신규 마을기업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됐으며 이후 시,군,도, 행자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 육성된다.

/안재용 기자

에너지공단 전북본부, 해빙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는 해빙기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일 부안 대명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해빙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침하 등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열사용기자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권진곤 전북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에너지시설의 안전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